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16 주차 (롬 5:7~14)

(2017년 4월 23일 - 2017년 4월 29일)

(제5권 16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16 호

창간일: 2014년 11월 2일

발간일: 2017년 4월 23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주일)

오늘의 본문 (롬5:7-8)

- ⁷ μὲν γὰρ ὑπὲρ δικαίου τις ἀποθανεῖται· (매우 드물게 어떤 사람이 의인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ὑπὲρ γὰρ τοῦ ἀγαθοῦ τάχα τις καὶ τολμᾷ ἀποθανεῖν· (더러는 선한 이를 위하여 담대하게 죽을 것이다)
- ⁸ συνίστησιν δὲ τὴν ἑαυτοῦ ἀγάπην εἰς ἡμᾶς ὁ θεός·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ὅτι ἔτι ἁμαρτωλῶν ὄντων ἡμῶν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Χριστὸς ὑπὲρ ἡμῶν ἀπέθανε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 세상에 과연 의인이 존재할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의인은 존재한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구해낸 얘기는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 듣는다. 지하철 역에서 발을 헛디더 철로로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정작 자기 목숨을 잃은 한국 청년도 있었다. 그것도 우리 나라가 아닌 일본에서다.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이를 제지하다 부상 당한 사람도 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간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잠수사들이 자신들의 생업마저 포기하고 그리로 달려갔다. 그 중에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무리하게 잠수를 하다 그만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잠수사도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의인이라고 부른다.

세상에는 이런 류의 의인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알려진 의인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의인도 있다. 그들은 당연히 찬찬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타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일은 인간 세상에서 그다지 낮은 풍경이 아니다. 우리 나라 역사만 봐도 외세의 침입에 수많은 민중들이 일어나 목숨 걸고 항거했다. 역사의 고비마다 나라와 대의를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나라가 존재한다. 그런 의인들이 있어 이 세상은 그래도 살 만하다. 이처럼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실까?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까? 반대로 인간에게 해를 입힌 자들을 악인으로 간주하여 그에 걸맞는 징벌을 내리실까? 세상은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상을 주고 반대로 잘못된 악행에 대해서는 보응을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원리다. 그런데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들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까지 규정한다. 인과응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는 마치 말로는 하나님을 앞세워 놓고서는 실제로는 그 뒤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수렴정정’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성경은 그런 인간들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일갈하고 있다. 욥기 35장 6절~8절을 읽어보자.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7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8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욥 35:5-8).

욥이 당한 갑작스런 고난을 보고 욥의 친구들은 분명 욥이 그럴만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욥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절대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실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욥의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죄는 벌하시고 선은 보상하시는 분이셨다. 그 때문에 그들은 집요하게 욥을 공격했고 욥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욥은 자기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공연히 자기를 과녁 삼아 괴롭히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참 동안 지리한 공방을 계속하던 그들의 논쟁은 엘리후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반전을 맞는다. 엘리후는 갑작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그들이 갖고 있던 선악 개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권선징악을 여지없이 깨부순다. 욥기 35장은 그 논쟁의 하이라이트다. 엘리후는 인간들이 행하는 선한 행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악한 행동이 별로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인간 세상에는 분명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바로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송하는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선 당연히 칭송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들이 한 선한 행동은 이 세상에서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사회에 악을 끼쳤으니 당연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감옥을 가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행위에 대해 합당한 결과를 받게 마련이다. 인간들은 살아 오면서 각 사회마다 그들만의 고유한 윤리 도덕을 만들어 왔다. 그것들은 모두 사회적 합의의 소산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동체가 합의해 온 윤리와 도덕 규범을 중시해야 한다. 물론 그 중에는 생명 윤리와 같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 관한 것도 있고 에티켓과 같은 아주 사소한 예절도 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것이든 공동체가 합의한 규범은 그 사회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어 온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의’라면 과연 하나님도 그것을 의로 받아들이실까? 안타깝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의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 눈에는 규범을 잘 지키며 살아온 몇몇한 바리새인보다 일신의 유익을 위해 규범을 무시하고 살았던 비겁한 세리가 오히려 의로운 자였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악 판단 기준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 바울은 말한다. 더러는 어떤 사람이 의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도 있고 더러는 선한 이를 위하여 담대하게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없다. 그런 일은 단지 인간들끼리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목상을 위한 질문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5:7-8)

- ⁷ μόλις γὰρ ὑπὲρ δικαίου τις ἀποθανεῖται· (매우 드물게 어떤 사람이 의인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ὑπὲρ γὰρ τοῦ ἀγαθοῦ τάχα τις καὶ τολμᾷ ἀποθανεῖν· (더러는 선한 이를 위하여 담대하게 죽을 것이다)
- ⁸ συνίστησιν δὲ τὴν ἑαυτοῦ ἀγάπην εἰς ἡμᾶς ὁ θεός,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ὅτι ἔτι ἁμαρτωλῶν ὄντων ἡμῶν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Χριστὸς ὑπὲρ ἡμῶν ἀπέθανε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간들이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을 성선설이라고 하고, 반대로 본래부터 그 본성이 악하다고 보는 주장을 성악설이란 한다. 이 두 주장을 놓고 사람들은 부지런히 인간들에게서 각각의 증거를 찾으려 한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선한 행동에 주목한다. 실제로 역사 속에 수많은 의인들이 존재했었고, 그들이 한 선한 행동은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는다. 또 갓 태어난 아기들은 어떤가? 갓난 아이를 악하다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고 그 마음 안에 선한 성품이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반대로 성악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에는 악한 성품이 내재되어 있으며 언제든 틈만 생기면 그 악은 형체를 드러낸다고 본다. 그렇기에 인간 세상에는 법과 규범이 필요하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으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원죄설에 입각한 기독교도 성선설 보다는 성악설을 지지한다.

필자는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 인간들이 생각하는 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말해 왔다. 인간들이 선하다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악일 수 있고, 인간들이 악하다 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선일 수 있다.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 분인지 의아할 때가 많다. 노아 홍수를 예로 들어 보자. 당시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단 여덟 명만 구원을 얻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찌면 그들은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 받았다. 도대체 그들은 왜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심판 받아 모조리 죽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명령으로 그들을 뒤쫓다가 홍해에서 익사당한 이집트의 군사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 더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갓난 아기를 포함해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선한 것일까? 그토록 무자비하게 닥치는대로 가나안 주민들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선하다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의 선악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선악 프레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물론 인간들은 세상이 만든 윤리적, 도덕적, 법적인 잣대로 타인들을 판단한다. 하지만 인간들에게 있어 선악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다. 그래서 어

편 이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이에게는 매우 심각한 결례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러니 어떻게 인간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자. 사도 바울은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그리스도인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로마서의 내용을 읽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죄인이다. 지금 막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고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산 사람도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좀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면 죄는 과녁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구약에 비추어 설명하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인, 혹은 가나안 토착민으로 태어났다고 보면 된다. 그의 태생이나 신분이 문제지 그의 성품이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제 아무리 성품이 좋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는 죄인이다. 이외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했는데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끝까지 보호하셨다. 그들의 행위나 성품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의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당시에 우리는 죄 아래 있었고 죄인이었다. 에베소서에는 좀더 나아가 우리를 죽은 사람이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에베소서 2 장을 보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²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³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었더니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⁵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엡 2:1-5).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였다. 여전히 심장이 뛰고 호흡하며, 생각도 또렷하고 게다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 움직이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더러 죽은 자라고 하니 말이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다고 말한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눈에는 죄인이고 죽은 자다. 만약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죽은 자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고 죽은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고 죄인이며 죽은 자였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악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만 가능해진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을 만나기 전 당신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 사실을 당신은 언제 어떻게 깨닫게 되었나요? 그 깨달음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될 것이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5:9-11)

- 9 πολλῶ οὖν μᾶλλον (그러므로 더더욱)
 δικαιωθέντες νῦν ἐν τῷ αἵματι αὐτοῦ (지금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σωθησόμεθα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
 δι' αὐτοῦ ἀπὸ τῆς ὀργῆς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 10 εἰ γὰρ ἐχθροὶ ὄντες (만약,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καταλλάγημεν τῷ θεῷ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화목되었다면)
 διὰ τοῦ θανάτου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πολλῶ μᾶλλον καταλλαγέντες (더더욱 화목되었기 때문에)
 σωθησόμεθα ἐν τῇ ζωῇ αὐτοῦ. (그의 생명에 의해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
- 11 οὐ μόνον δέ, (그뿐 아니라)
 ἰλλὰ καὶ καυχόμενοι ἐν τῷ θεῷ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가])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δι' οὗ (그를 통하여)
 νῦν τὴν καταλλαγὴν ἐλάβομεν. (지금 우리가 화목함을 받았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이 땅에 임하는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믿는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매순간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그때 그때마다 상과 징계를 내리신다고 믿는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는 늘 현재형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인생 총량을 재어 우리의 행위가 악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고 선한 행위가 많으면 상을 주실 거라 믿기도 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에 유보되어 있다고 믿는 부류들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두 주장을 절충하여 하나님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상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죽어서도 우리를 무시무시한 심판대에 세우실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토록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어찌면 너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마다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다르고, 각자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르며, 선악에 대한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런 중구난방식의 이해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생각이 곧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향해 진노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좌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 장에서 세상을 향해 이렇게 포문을 열었다.

“¹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¹⁹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²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롬 1:18-20).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마음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온갖 합당치 못한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

“²⁹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³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³¹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롬 1:18-31).

이 말씀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는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 법에 저촉되어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정도가 되어야만 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라. 정말로 우리는 남을 시기한 적이 없는가?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를 비난하거나 가십한 적이 한 번도 없는가? 남들을 비방한 적도 전혀 없는가? 길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론 은근히 자랑하고 우쭐댄 적은 없었는가?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들 앞에서 때론 교만한 적은 없었는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인간을 향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들은 서로 다른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부류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뒤로 숨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 그룹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다. 그런데 한 부류는 그 진노를 자기가 고스란히 받고, 다른 한 부류는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진노를 받으신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될 것라고 선언한다. 우리가 남보다 선하거나 뭔가 잘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다. 둘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능력도 없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과하는 순간 사랑으로 변해 우리에게 온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운 자였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진노를 면하게 되었나요? 당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았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의 생명을 의해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5:9-11)

- ⁹ πολλῶ οὖν μᾶλλον (그러므로 더더욱)
δικαιοθέντες νῦν ἐν τῷ αἵματι αὐτοῦ (지금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σωθησόμεθα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
δι' αὐτοῦ ἀπὸ τῆς ὀργῆς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 ¹⁰ εἰ γὰρ ἐχθροὶ ὄντες (만약,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κατηλλάγημεν τῷ θεῷ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화목되었다면)
διὰ τοῦ θανάτου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πολλῶ μᾶλλον καταλλαγέντες (더더욱 화목되었기때문에)
σωθησόμεθα ἐν τῇ ζῳῇ αὐτοῦ. (그의 생명을 의해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
- ¹¹ οὐ μόνον δέ, (그뿐 아니라)
ἀλλὰ καὶ καυχόμενοι ἐν τῷ θεῷ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가])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δι' οὗ (그를 통하여)
νῦν τὴν καταλλαγὴν ἐλάβομεν. (지금 우리가 화목함을 받았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의 사랑을 입증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그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런데 진노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소극적 의미의 구원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심판을 면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적극적 의미의 구원을 생각해야 한다. 구원이란 단지 심판을 피하는 소극적인 게 아니다. 구원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계획을 완수하러 오셨다. 단지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없었다. 굳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도 됐을 것이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음에는 우리를 진노로부터 피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죽으셨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복음의 의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 장 24 절 29 절을 읽어보자.

“²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²⁵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

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²⁶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²⁷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²⁸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²⁹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4-29).

구원은 심판을 모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삼일만에 부활하셨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사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망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기 이전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와 화목되었다면, 우리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의 생명에 의해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롬 5:10, 헬라이어 직역)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은 기독교를 욕하거나, 우상을 따르고 다른 종교를 믿으며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충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매달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의 계획이나 소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와 자신이 원하는대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외치며 매달린다. 지금 이런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자기 생각대로 일이 술술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에 이루어졌다고 감사한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일 뿐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신적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사망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로마서 8장 6 절~8 절 참조).

결국 구원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새 생명을 얻은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적극적 삶이다. 당신은 어떤가? 아직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새 생명을 받은 증거고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목은 관계에 대한 문제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5:9-11)

- ⁹ πολλῶ οὖν μᾶλλον (그러므로 더더욱)
δικαιοθέντες νῦν ἐν τῷ αἵματι αὐτοῦ (지금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σωθησόμεθα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
δι' αὐτοῦ ἀπὸ τῆς ὀργῆς.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 ¹⁰ εἰ γὰρ ἐχθροὶ ὄντες (만약,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κατηλλάγημεν τῷ θεῷ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화목되었다면)
διὰ τοῦ θανάτου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πολλῶ μᾶλλον καταλλαγέντες (더더욱 화목되었기때문에)
σωθησόμεθα ἐν τῇ ζωῇ αὐτοῦ. (그의 생명에 의해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
- ¹¹ οὐ μόνον δέ, (그뿐 아니라)
ἀλλὰ καὶ καυχόμενοι ἐν τῷ θεῷ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가])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δι' οὗ (그를 통하여)
νῦν τὴν καταλλαγὴν ἐλάβομεν. (지금 우리가 화목함을 받았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로마서 5 장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눈에 띈다. 바로 화목이다. 평화라는 단어가 그러하듯 화목 또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다. 살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졌다.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다. 그것이 살롬이다.

살롬은 마이너스 상태를 제로 상태로 만든 것이다. 전쟁이 없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 문제를 재론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 살롬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만들어 놓은 것은 단지 죄와의 전쟁을 마무리 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화목은 전쟁이 끝나 평화가 선포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졌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입증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인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이고 느낌이다. 관계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이 없는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든 성도들간의 사랑이든 모든 것을 감정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피터스카지로 목사는 그의 책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감정을 부절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을 왜곡하는 것과 같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어렵다. 감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우리의 영성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다름없다”(피터스카지로 저, 조계광 역,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생명의 말씀사, 41 페이지에서 인용).

우리의 구원은 다분히 이론적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구원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논리에 설득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다. 실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인간은 자신이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모두 믿는 건 아니다. 얕이 지적인 영역이라면 믿음은 영적이고 감성적인 영역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렇기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청산유수로 설명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믿음은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데 있다. 하나님과 평화 관계가 형성되면 성도의 감정 가운데 제일 먼저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움의 감정은 아직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 4:18).

구원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선포다. 더 이상 실수하거나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 하나님은 더 이상 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은 가져야 한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다. 구원은 단지 두려움을 없앨 뿐만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 준다. 기쁨의 감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구원은 능력이 있어 내면으로부터 샘 솟듯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다. 그것이 진정한 화목이다. 화목은 성도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한다.

“¹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¹⁹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²⁰ 이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18-20).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라.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는가? 신앙은 현재 자신이 처한 형편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날마다 세상과 사람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서도 내면의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다. 바울은 말한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함을 받았다고 말이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셨으니 이제 기쁘게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입니까? 무엇으로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원죄 그리고 구원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5:12)

¹² Διὰ τοῦτο (그러므로)

ὥσπερ δι' ἑνὸς ἀνθρώπου (마치 한 사람을 통하여)

ἡ ἁμαρτία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εἰσῆλθεν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 온 것처럼)

καὶ διὰ τῆς ἁμαρτίας ὁ θάνατος, (그리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καὶ οὕτως εἰς πάντας ἀνθρώπους ὁ θάνατος διῆλθεν,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ἐπ' ὃ πάντες ἥμαρτον.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원죄론이라는 신학 이론이 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 왔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이론이다. 원죄론에 따르면 인간들은 원죄와 자범죄라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한다. 원죄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남녀노소 누구도 이 원죄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원죄 외에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란 살아가면서 인간이 알게 모르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또는 고의로 짓게 되는 죄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원죄를 마치 죄의 근원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내면에 이미 죄(원죄)가 있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 다른 죄(자범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죄를 치유할 수 없는 악성 유전병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원죄론이다. 인간들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나타난 것을 죄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죄의 유무와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간들이 만들어 온 관습, 윤리, 도덕 등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지 인간의 성품이나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세상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인간의 성품에 점수를 매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평가 해놓은 결과를 토대로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 즉, 원죄론을 뒷바침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원죄를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원죄는 존재한다. 그 원죄는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이 인간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끊으신 것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이나 성품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했다고 (사 53:6),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고 말했다 (벧전 2:25).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길을 잃고 헤매는 상태를 원죄로 본다. 제 아무리 성품이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어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죄인이다.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은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따 먹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단절을 선언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 내신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틈새가 벌어졌다. 이렇게 생겨난 관계의 틈새가 바로 원죄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인간은 원죄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원죄나 원죄론을 주장하기 위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미치는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아담의 범죄와 그 영향력을

설명했다.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바울은 12 절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한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이 아주 밀접한 인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며 친밀한 관계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까? 바울은 죄와 사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이를 설명해 내고 있다. 로마서 5 장 12 절을 다시 한 번 읽어보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왔다.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이다. 실제로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는 이 부분을 ‘아담 에하드’(אדם אחד) 즉, 한 아담으로 번역하고 있다. 한 아담을 통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즉, 첫 사람 아담은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들여온 장본인이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미치게 되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는 필연적으로 사망을 부른다. 이 같은 성경 주장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들의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라는 죄와 사망의 불씨를 만드셨을까? 필자는 앞서 창세기 3 장에서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서는 선악에 대한 논쟁보다는 로마서의 논증에 입각해서 답을 해보기로 한다. 로마서는 몇 번의 반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반증이 3 장 21 절과 22 절이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엄청난 선언을 한 바울은 죄인들이 거기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이렇게 반전을 꾀한다.

“²¹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²²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1-22).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의가 만들어졌다. 아담을 통해 들어 온 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만들어 놓은 의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죄로 인해 인간 모두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면 그리스도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사망이 죄인들에게 왕노릇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생명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에 묻혀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차별없이 누리는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더러 죄인이라고 말하면 사실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하지만 그런 억울하고 분한 감정 때문에 피할 길, 살 길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왜냐하면 그와 동일하게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원죄라는 말만 가지고 투덜댈 필요가 없다. 사실 원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이 아니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바울이 원죄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원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죄와 사망은 아담 때부터 있었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5:13-14)

- ¹³ ἄχρι γὰρ νόμου (왜냐하면 율법의 때까지)
ἁμαρτία ἦν ἐν κόσμῳ, (죄가 세상에 있었다)
ἁμαρτία δὲ οὐκ ἐλλογεῖται (죄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μη ὄντος νόμου, (율법이 없을 때에는)
- ¹⁴ ἀλλ' ἐβασίλευσεν ὁ θάνατος (그러나 사망은 지배했다)
ἀπὸ Ἀδάμ μέχρι Μωϋσέως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καὶ ἐπὶ τοὺς μὴ ἁμαρτήσαντας ἐπὶ τῷ ὁμοιώματι τῆς παραβάσεως Ἀδάμ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ὅς ἐστιν τύπος τοῦ μέλλοντος. (그는 오실 자의 표상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평소에 수업 시간만 되면 깜빡깜빡 조는 한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아담이다. 어느 날 역사 시간에 어느 때처럼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아담은 졸기 시작했다. 고개가 좌우로 흔들리고 동공이 풀리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풀썩 떨구고는 본격적인 취침 모드로 들어갔다. 이를 보다 못한 교사가 아담을 불렀다. “헤이! 아담,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의 공통점이 뭔지 이야기해 주겠나?” 갑작스런 질문에 자다 깬 아담이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이내 이렇게 대답했다. “예...모두 죽었습니다.”

오래 전 읽은 우스갯소리다. 웬 아재 개그를 하나고 편잔을 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역사 시간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대답 같다. 아마 철학 시간이었다면 조금은 나왔으리라. 그런데 이게 신학 시간이라면 어떨을까? 너무도 깊이 있는 대답 아닌가? 성경은 모든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매우 심각하게 다룬다.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의학 분야와는 달리 신학의 영역에서는 왜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왔으며 그 예외없는 죽음 앞에 우리가 어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였던 조지 워싱턴도 죽었고,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미국인들이 행운으로 여기는 2 달러 지폐의 주인공인 토머스 제퍼슨도 죽었다. 흑인을 해방하고 남북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아브라함 링컨도 죽었다. 우리 민족이 존경해 마지 않는 세종대왕도 죽었고, 이순신 장군도 죽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장구한 인류 역사에 비하면 100 살까지 장수한 사람이나 젊은 날에 요절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매우 짧다. 장수나 단명이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인 셈이다.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런 죽음을 해석하는 시각에 관한 문제다.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진다. 성경은 단지 인간들의 육체적인 죽음을 사망으로 보지 않는다. 죽었다고 하나 산 사람이 있고, 실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놓으셨다. 하늘의 생명,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인간들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아 두었다. 성경적 죽음이란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끊기고, 뇌 기능이 중지되는 것을 의미하

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사망 상태에 놓여 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주범은 바로 죄다.

앞서 바울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고 했다 (롬 4:15). 율법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당연히 죄는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이미 어그러진 상태였다.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 죄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사망이다. 율법이 오기 전까지 인간들을 정죄할 기준이 없었기에 당연히 유죄 여부를 따질 수 없었다. 그런데도 죽음은 여지없이 인간들에게 찾아왔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지배를 당하게 됐다고 했다. 사망이 모든 인간들의 왕이 되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이 세상에 죄를 끌어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사망까지 가져왔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죄인이었고, 그 때문에 둘째 아들 아벨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다. 물론 아담 자신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죄와 사망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당연한 문제가 되었다. 첫 사람 아담이 불러 온 죄와 사망은 모든 인류를 그 속에 가두었다.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보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들을 의롭게 했고 그의 부활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 새 생명을 주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만들어 놓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무차별적으로 미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차별적인 영향을 준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인이 된 것처럼, 아무런 의로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복음은 인간이 망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이다. 인간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인간이 사망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셨고 영생의 산 소망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 인간은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사망의 저주를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도 없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끊으셨으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사망의 멍에서 우리를 꺼내 주셔야만 한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종착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당신은 그 사실을 믿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아담은 어떤 의미에서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당신 자신에겐 어떤 의미가 있나요?